

Living the Lotus 11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30



Risho Kosei-kai of San Francisco Celebrated
Its 45th Anniversary on September 15



Living the Lotus Vol. 230 (November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문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코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만남이 키워준다

—공경하는 마음·부끄러워하는 마음

①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공경심을 발달시킨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인간이 진보 향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심을 발달시키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라는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본 회의 올해의 방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대한 것에 가까워지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며 또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공경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부터 말씀드려왔듯이, 자신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스스로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합장인(合掌印)을 하고 꾸준히 배례를 해 주고 계시는 저희 집 부처님 덕분에 저는 스스로의 고귀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부처님과 마주하며 합장배례를 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저도 부처님에게 배례를 받고 있다’ 는 것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휘호를 ‘경외(敬畏)’ 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경심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다만, 경외(敬畏)라고 하면 신불과 우주, 대자연 등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존재나 작용에 대한 ‘두려움’ 과 ‘공경’ 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역사상의 성인이나 현인·위인에 대한 공경심도 그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평상시에 접하는 사람이나 일 등, 일상의 ‘만남’ 하나하나가 경외의 대상이며, 공경심은 그야말로 하루 하루의 생활속에서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란, 마음의 영양

예를 들어 부모 자식의 경우, 부모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혼내거나 화내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맹자도 ‘군자는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부모 자식 사이에는 공경심을 기르는 것이 어렵다고 옛부터 말해져 왔습니다. 저는,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있고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다면, 부모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는 ‘언행일치’의 자세를 잊지 말 것 - 그것이 부모 자식이 함께 공경심을 키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자칫 그 대상을 찾아 ‘위’ 쪽으로만 눈이 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등한 사람이나 아직 젊어서 나보다 경험이 얕은 사람도,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부나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 장점과 미점에 감응하여, 그 점을 찬탄하고 따라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자타의 공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만남이 공경심을 키워주는 영양분이며, 그것은 상불경보살의 배례행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츠시타 코우노스케(松下幸之助)씨는, ‘천지자연, 이 세상 속에, 공경심만 있다면 공경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수히 있다’ (『길을 열다』 / PHP연구소)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 속에 지니고 있는 공경할 만한 가치를 발견할 능력이 주어져 있다.’ 고 말하며, 그 능력을 살려서 서로 공경심을 높이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경심이 발달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만남은,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을 키워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만남 중 하나인 포교 전도의 의의와 함께, 다음 호에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성』 2024년11월호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두가 사이 좋게, 행복하게

□□□ · 사할린 법좌 □□□



입정교성회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입회하셨습니까?

제가 입정교성회에 입회한 것은 2014년 11월입니다. 2013년에 남편이 죽고 슬픔에 젖어 있던 저를 걱정한 친척인 박옥희씨(현재 한국주재)가, 입정교성회 신앙을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러시아 정교회를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단체인 입정교성회에 입회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러시아 정교에서 불교로 종교를 개종해도 괜찮을까’. 여러가지로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로부터 1년 후, ‘조상님께 마음을 쓰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죽은 남편과 부모님에 대한 공양이 되기도 할 거야. 아무튼 일단 한번 입정교성회에 가보자’ 하며 박옥희씨와 함께 입정교성회 사할린 법좌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승가 여러분들은 미소 띤 얼굴과 함장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며, 처음으로 제목을 제창하며 경전을 읽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왠지 신기할 정도로 땀이 났었는데, 아주 기분 좋은 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입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후, 박옥희씨에게 독경할 때 사용하는 ‘경전(러시아 번역)’을 건네받았습니다. 박옥희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경전 읽어 봤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마 그 훌륭함을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박옥희씨의 그 말에 이끌리듯 ‘경전’을 읽다 보니,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이해입니다만,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해져 있는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의 훌륭함을 알게 되어, 입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독경 공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입정교성회의 기본신행이라 불리는 독경공양은, 부처님과 선조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주 감사한 것이며, 살려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아침에는 출근 준비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독경공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그 날 하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문을 맛보듯이, 독경 공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경 공양을 통해서 얻은 공덕과,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최갑순씨

니까?

저는 이전에 한국 요리식당의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일로, 화나고 싫을 때도 많이 있어서 심신이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날은 정말로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당에서 일심으로 독경공양을 하면,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폭자게 되어, 다음날 아침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일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독경공양이란, 부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경전’ 독송을 통해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법화경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에는 상불경보살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불성배례하는 자세에 대해 설해져 있는데, 저는 철저한 이 배례행에 감동하여 마음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품에서 상불경보살은 ‘저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하며 일심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불성을 배례합니다. 그러나 상불경보살에게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

은 바보취급을 하고 있다며 상불경보살에게 화를 내거나 경멸하거나 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 막대리로 때리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상불경보살은 ‘당신들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며 끊기 있게 계속해서 한결같이 배례행을 하여 결국에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크고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 상불경보살을 본받아,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한 가지 일을 끊기 있게 실천하여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입정교성회의 가르침 중,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개조님께서서는 법화에서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내가 바뀌기 전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며 그 결과 대립과 분쟁으로 이어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삼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 보다 먼저 내가 바뀌는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이 내가 주체적·적극적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은 아주 고귀하며 훌륭한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승가’에게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모두가 법좌소에 모여 함께 경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가가 있는



사할린 법좌소 법당 앞에서 승가와 함께(앞줄 오른쪽)



사할린 법좌소에서 법당 불구를 닦고 있는 최갑순씨(왼)

덕분에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지탱하고 지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즐겁고, 감사하게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좌 수행을 통해서 인생의 고민과 괴로움, 기쁨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법을 배우며 절차탁마하는 장소로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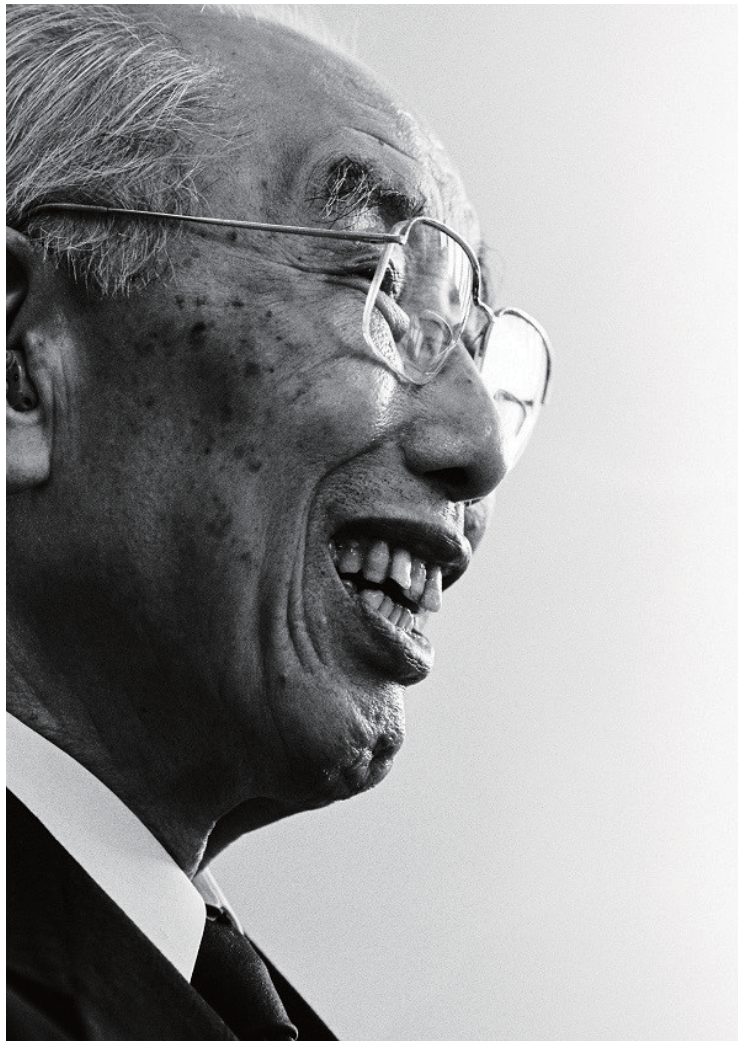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두가 사이 좋게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법좌소의 승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한 사람이라도 많이 사할린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가르침을 전달하여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5명의 손주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커서 건강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사(生死)는 부처의 생명

니와노 닛쿄
입정교성회 개조님



불교에서는 「생·노·병·사」를 「고(苦)」의 대표로 하여 「사고(四苦)」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보살행에 정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자기가 행복할 때만 「부처님께서 수호해주셨다」「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 큰 병에 걸렸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회사가 도산했다고 할 때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실 때입니다. 한 장년부원이 이와 같은 체험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레스토랑을 여러 개 경영하고 있었는데 차츰 빛이 늘어나 가게를 하나 둘씩 처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병이 들어 큰 수술을 앞두고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수술도 성공하고 조금씩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 순간 이전에 간부한테서 들었던 「당신은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십니다.」는 말을 기억해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회사를 키웠고 어떤 어려움도 개척해 왔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이 그 후부터는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수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마의 「고(苦)」에 휘둘리게 됩니다.

도우겐(道元)선사는 『정법안장(正法眼藏)』에서 「이 생사(生死)는 바로 부처의 생명이니」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고」가 그대로 부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부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으므로 병에 걸리는 것도 늙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그대로 부처의 「생명」이며, 부처의 대자비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제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는 불도를 걷는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주선」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니와노 닛쿄 헤이세이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p.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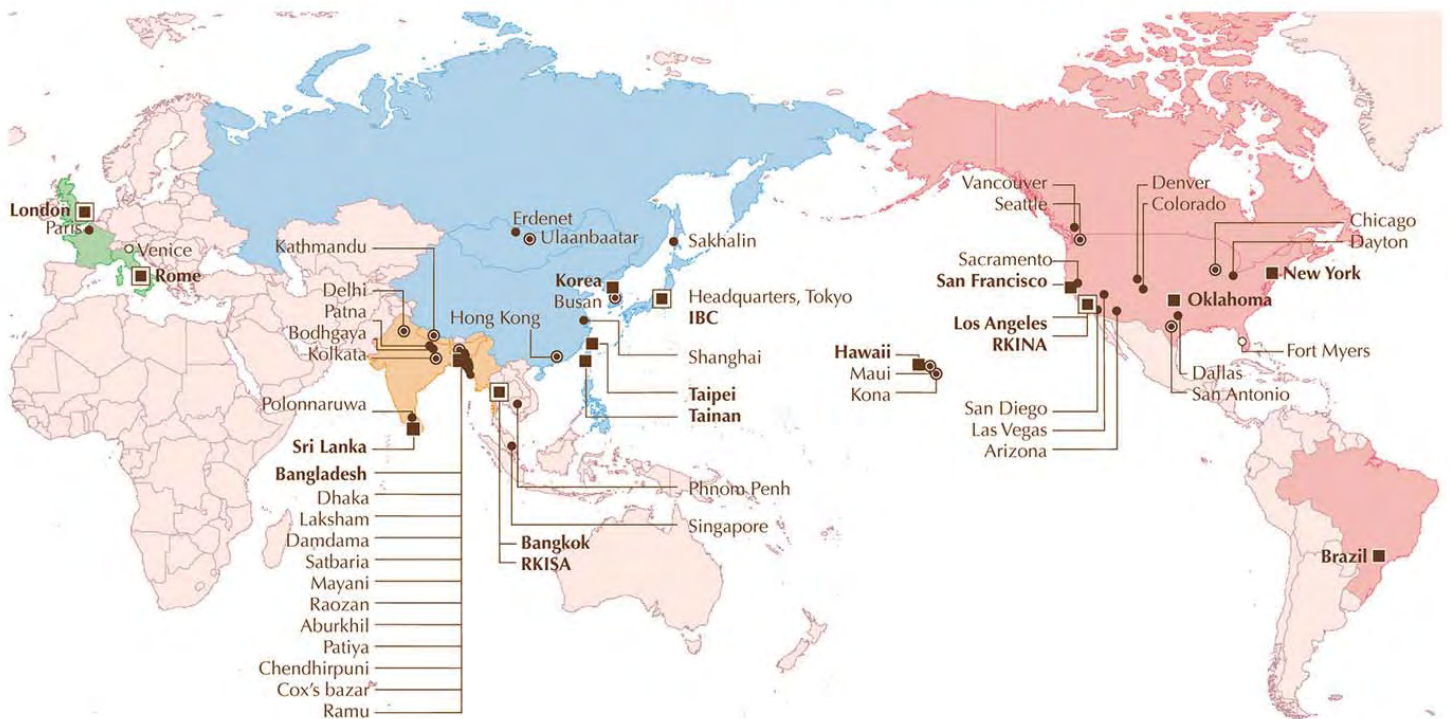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